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사활 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후속대책 착수

전주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드론과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먹거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전주만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무 IT팀을 꾸리는 등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의 후속대책을 본격화한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추진해온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 8개 분야, 17개 단위과제, 43개 세부추진과제 등 전주시 미래먹거리산업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관계부서 공무원과 정책연구원, 출연기관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관련 전문가·교수 등으로 8개 분야별 실무 IT팀을 구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별 실무 IT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전주시 신성장동력주력산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업의 당위성 및 논리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및 세부 사업내용을 검토보완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국가예산 확보 및 핵심과제 사업화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기의 변화와 혁신에 전략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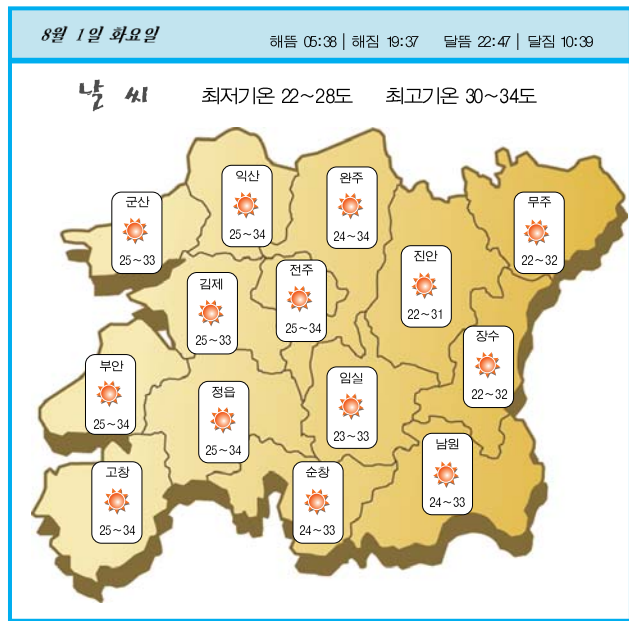
이에 앞서, 전주시는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산업동향과 미래트렌드 성장 전망 등 산업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정부의 R&D중장기 투자전략과 미래 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정책방향을 종합해 전주시 역량과 입지여건을 고려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신성장동력산업 8개 분야는 신성장산업 종합, 드론산업,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IoT)산업, ICT융복합산업(IT/CT),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또,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육성, 전주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 AR/VR 및

전통문화 기반 문화체험공간 구현을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 프로젝트와 연계해 향후 전주시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후속대책을 통해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 완화 · 교육복지 확대 사회배려대상 학생 기숙사비 지원

월 5만원씩 총 2억여원

도교육청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39개 기숙사운영 고등학교의 입학준비 사회배려대상 학생 350여명에게 기숙사비 월 5만원씩 총 2억여원을 지원한다.

현재 전북도는 기숙학교 13교와 도농복합도시 및 농산어촌 기숙사운영 고등학교 42교의 입학준비 사회배려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월 2만원에서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지역 기숙사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월 5만원을 지원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숙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 입학 및 중도 퇴사 사례를 감소시키고자 도시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수요조사 실시와 예산 확보 노력으로 기숙사비 지원액을 점차 증액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배려대상 학생들의 기숙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되어 입학 희망자가 늘어날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중국 연변대병원 우호협력 증진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은 중국 연변대학교병원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중국 지린성 연변대병원에서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자국 국민 건강 증진 협력과 의료 정보 교류, 상호협력 등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병원은 의료진·연구원 상호 교류·연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학·교육·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에 나서게 된다.

연변대병원은 지난 1948년에 개원한 3차 의료기관으로 300여 명의 임직원과 3000여 병상을 갖춘 종합 병원이다. 특히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시설을 도입하고 있어 중국내에서도 위상이 높다.

최두영 병원장은 "지리적으로나 많은 인구, 의료시장 확장성을 생각하면 의료계의 중국 진출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중국에 의료한류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와 경찰수사연수원이 지난 31일 원광대학교 회의실에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김도중 총장과 김현기 연수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광대-경찰수사연구원, 상호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원광대학교가 경찰수사연수원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1일 체결했다.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김도중 총장과 김현기 연수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문적, 실천적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한 전문 경찰인력 양성과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학술, 정보, 기술, 시설 등의 상호 교류와 교과과정에 필요한 교수 교환 강의, 정부 지원의 각종 교육, 연구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김도중 총장은 "CSI, 프로파일러, 검시관 부검의학 등 경찰업무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학 협력의 필요성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원장은 "앞으로 경찰수사 분야의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협약이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사 분야에 지원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수사연수원은 지능 강력범죄, 과학·사이버 수사 등 범죄수사 전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사전문 교육기관이다.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